



아프가니스탄, 잃어버린 문명

이주형 지음

사라진 4000년 대륙을 위한 환타

사회평론

잃어버린 문명을 찾아서

책 가운데,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시선을 아주 먼 곳으로 되돌려 놓는 책이 있다. 아주 먼 곳, 그곳은 결코 가본 적이 없는 꿈의 나라이다. 동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오고가는 것이 편해졌고, 광범위한 정보매체가 거리를 단축하고 있지만, 가기 힘든 나라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발품을 팔아야 갈 수 있고, 여행하는 고뇌를 이겨내야만 닿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 젊은이들이 배낭을 메고 여행을 하지만, 사실 배낭여행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나는 배낭여행하는 이들에게 더러 불만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한결같이 유럽이나 미국 혹은 아시아 몇몇 나라만을 집중적으로 다녀오기 때문이다. 통일신라시대의 영원한 방랑자였던 헤초처럼 하지는 못해도, 지구 곳곳을 돌아다닐 필요는 참으로 많다.

하여, 나는 지금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을 때, 서재에서 지도를 펴놓고 이곳저곳을 볼 때가 있다. 미리 정해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종이 위를 이리저리 가다가 멈출 때가 있다. 내가 이름 붙인 서재의 등산학은 지도를 보면서 가고 싶은 곳을 마음에 담아두는 일이다. 그러면 그곳에 갈 때가 반드시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내게 그런 나라였다. 오래 전, 나는 그곳을 꿈꾸었고, 그곳에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오랜 시

간이 지난 요사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책을 손에 들고 읽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은 우연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잃어버린 문명』, 우리에게 아프가니스탄은 어떤 나라인가? 1978년 공산혁명과 이듬해 소련의 침공으로 비극이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은 우리에게 너무 먼 나라임에 틀림없다. 지리적으로 먼 나라는 사실과 문화적 이해와는 별개의 문제일 터이다. 학술은 최초에 관심으로 시작해서 시선이 하나로 정해지지만, 최종적으로 서술을 통해서 그 시선은 복수가 된다. 이른바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책 겉장에 적혀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보자.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이자 동서 문화의 접점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이란 표현은 참으로 낯설다. 그만큼 우리는 좁게 우리 주변에만 몰두해 있다. 만약 힌두쿠시에 묻힌 은둔의 이 나라가 광대한 문화유산을 지닌 나라였지만, 후대에 그러한 문화유산이 오랜 전쟁으로 파괴되고 상처를 입었다면, 그 문명적 비극은 결코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저자는 2001년 3월 그 유명한 대불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 믿을 수 없는 악몽이 현실이 된 후, 2002년 8월에 그곳으로 갔다. 인류의 유산이었던 대불은 파괴되었다. “나는 이제 대불을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저자의 프롤로그는 사실 “인류는 이제 대불을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다”

라는 탄식으로 울린다. 하여, 이 책은 고대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지닌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사라져가는 아프가니스탄 문명과 충돌에 의한 파괴에 관해서 폭넓은 통찰로 쓰여졌다. 저자의 글쓰기 밑바탕에는 아프가니스탄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정치적인 환경, 이념, 전쟁, 가치관의 충돌과 같은 역사적 맥락이 깔려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아프가니스탄이 겪고 있는 오늘의 불행을 말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불교와 이슬람, 소련의 침공과 내전, 이슬람과 우상 파괴, 나아가 문명과 파괴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을 통째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우리에게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연구서는 매우 적다. 이 책은 희귀성 때문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한 나라의 비극은 곧 문화의 부재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맨 끝 부분, 오랜 문명의 역사가 그 빛나는 유산을 남기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자산이 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새겨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발로 시작해서 손으로 쓴 연구서. 이런 책은 좋을 수밖에 없다. 나도 이렇게 책을 쓰고 싶다.

안치운 | 호서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연극평론가